

# 화물차 멈췄다...광주·전남 물류대란 우려

### 화물연대 광주·전남본부 총파업...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 '준법투쟁' 철도노조, 내달 2일 총파업 예고 "민영화 시도 철회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철도노조도 24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광주·전남지역 물류와 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4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과 광양항국제터미널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는 광주 조합원 1500여명, 전남 조합원 2800여명 등 총 4300여명이 동참했다.

조합원들은 광주 삼성, 기아, 금호타이어 사업장과 광양항만 등지에서 전단지 배포, 나눠주는 등 사업장별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화물연대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에 도입돼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현재 시멘트, 컨테이너 등 일부 화물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를 영구 제도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 6월 총파업 협의를 완전히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조도 24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정해진 작업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열차 지연 등 승객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기관사, 승무원, 정비 분야에서 약 600여명의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해, 일부 열차가 잠정 중단됐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해진 원칙대로 근무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 시간에 맞춰 열차 정비가 불가능해 사측에서 일부 열차의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 순천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호남지방본부는 2600여명의 조합원 중 16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철도노조는 인력증원과 인단협 갱신, 민영화 시도 철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측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에서도 관리자급의 승진 독식과 불평등한 임금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계가 개선되지 않아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관제업무, 시설유지 보수 업무 등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영화의 포석으로 보고 계획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역 주요 사업장들도 파업이 장기화될 것을 감안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은 광주시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기존 차량 보관 장소인 평동 출하장

(5000대), 전남 삼성 물류센터(3000대) 등지에 1만6000대의 적치 공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스포티지, 셀토스, 쏘울, 봉고트럭 등 하루 2000여대를 생산하는 것을 감안할 때 8일이면 적치 공간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

이에 기아는 파업이 길어질 것에 대비, 임시 적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도 제품 출하·원부재료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고, 삼성전자 광주시

업장은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광주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적법한 집회는 보장하면서도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 폭행, 차량 손괴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할 방침이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광주·전남 첫 합동 군악 연주회

### 31보병사단·제3함대사령부 전남대서 화음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악 연주회가 열렸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해군 제3함대사령부와 함께 24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대강당에서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합동 군악연주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전남지역을 수호하는 영웅을 노래하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합동군악연주회는 육군 31사단·해군 3함대의 합동 군악연주, 무용, 성악, 초청가수 공연 등 약 90분간 진행됐다.

연주회는 군함의 출항을 알리는 타종 방송으로 시작해 “Summon the Heroes”, “Here’s to the Heroes” 등 영웅을 기릴 수 있는 곡들이 연주됐다.

초청 무대에는 ‘22년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지역을 대표하는 무용단으로 우뚝 선 ‘Sun&Friends’와 성악가 송은혜가 함께 했

다. 흥원표 육군 31사단 군악대장은 “해군 3함대 군악대와 함께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을 배웠다”면서 “이번 광주·전남지역 합동 군악연주회를 계기로 민·관·군·경·소방이 일치단결해 굳건한 통합방위태세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엘니뇨 발생’ 1년 전에 알 수 있다

### 전남대 함유근 교수팀, 새 기후인자 규명

전남대 함유근 교수팀이 엘니뇨 발생을 1년 여 앞당겨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후인자를 규명했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함유근 교수(교신저자)와 조현수 박사(제1저자)가 주도한 연구팀이 2000년대 이후 중태평양 엘니뇨의 발생이 남인도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쌍극자 형태의 변동을 보

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팀이 엘니뇨 유발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늦가을 남인도양의 해수면 온도 변동이 쌍극자(Dipole) 패턴으로 발생하고, 서태평양의 바람장 변화를 유도해 이듬해 겨울 중태평양 엘니뇨를 발달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같은 새로운 기후인자를 활용하면 중-장기적

인 엘니뇨 예측은 물론 전 지구 기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태평양 엘니뇨 발생에 대해서도 조기 예측이 가능해진다. 최대 14개월 앞서 예측할 수 있어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 재해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함 교수는 “발생지역이 동태평양과 중태평양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타입의 엘니뇨는 한반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현상 중 하나”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이듬해 겨울철 한반도 기후변화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연구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11월 15일자에 발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5·18피해자 136명, 정신적 손배 승소

### 가두방송 차명속씨 등 참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현장유린에 맞선 136명의 5·18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임태형)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6명(26명 사망·상속인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금액의 4~100%인 150만원~2억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는 5·18당시 가두방송을 한 차명속(여·61)씨와 고 전옥주(전춘심)씨의 유족,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 저자 전용호(64)씨, 고 신영일 들불열사(1958~1988) 등도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근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정당행위를 했음에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중대성,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배상이 42년간 지연된 점, 5·18민주유공자 예우·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